

지역 소식통

정읍시,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선정... 운영 간담회

정읍시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앞두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장애인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정읍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정읍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샘골아학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지난 2월 12일 전북에서 유일하게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3년간 국고보조를 받는다. 올해는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 장애인의 다양한 학습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한다. 간담회에서는 7개 사업 11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협의체 구성과 프로그램 참여자 발굴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장애인도 평등하게 학습하고 사회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소방서, 야외 소각 등 산불 예방 대책 추진

고창소방서는 봄철을 맞아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 등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화재 위험 지역 순찰 강화 △주민 대상 화재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확대 △야외 소각 및 건설현장 용접 작업 안전 점검 △각 가정의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설치 홍보 △방화 감시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들불과 아궁이 사용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화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감시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창소방서는 이를 통해 화재 예방과 안전한 지역 사회 민들기에 기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집앞에서 편하게 버스타고 공항가요”

고창군, 고창버스터미널-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운행 시작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노선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주)금호고속이 이날 오전 0시10분 첫차로 고창버스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간 버스운행을 시작했다.

이번에 운행되는 인천공항행 버스는 고창군과 전북특별자치도, 국토교통부, 금호고속이 수차례 협의를 거쳐 신설노선 인가를 얻어냈다.

고창에서 정읍, 김제를 경유해 인천공항으로 본격 운행에 들어가게 되며 주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교통복지 실현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게 됐다.

인천공항을 왕래하는 이용객들은 고창버스공용터미널을 이용해 승·하차



할 수 있으며 하루 2번 운행된다.

고창출발 시간은 자정 0시10분, 오전 9시50분이고,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시간은 제2터미널 아침 7시30분, 오후 5시 20분이다. 약 4시간10분이 소요되며

운행요금도 고창기준 4만2500원(심야 4만6800원)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의 숙원이었던 인천국제공항간 고속버스 운행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산불 예방 철저 당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영상 간부회의에서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순찰 강화를 지시하고, 영농폐기물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각 부서와 읍·면·동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영농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시는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

며 산불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주요 산림 지역과 영농 폐기물 적치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마을 방축과 안내문 등을 활용해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사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남긴다”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준비 철저” 당부

주요 간부회의에서 강조... “봄철 영농기 농기계 점검·정비”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오는 5월 열리는 제12회 부안마실축제 준비 철저를 당부했다.

권익현 군수는 10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제12회 부안마실축제가 해탈마루 지방정원에서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며 “부안마실축제는 한국축제콘텐츠협의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축제의 위상이 높아졌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작년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점들을 철저히 점검해



한층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준비기간 동안 직원들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권익현 군수는 또 “본격적인 영농철

을 맞아 임대 농기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농기계 사고 예방과 농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농기계 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모든 공직자는 공직선거범을 철저히 숙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엄수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불리한 언행을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시민 안전 최우선

이학수 정읍시장, 해빙기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나서

정읍시가 해빙기를 맞아 건축 공사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10일 민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 13명과 함께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건축 현장을 방문해 분야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동안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구조물 균열, 전기·소방시설 문제 등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정읍문화유산 방문자센터와 무성서원 유교수원원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반 침하 및 균열 여부, 가시설·비계 구조 안전성, 건설 자재 적치 상태, 화재 예방·안전관리 실태, 개인보

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건축 관계자들에게 해빙기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위험 요소는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해빙기는 겨울철 결빙된 지반이 약해지면서 붕괴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 건축물 사전 점검

부안군은 군청 민원과에 ‘부안군 지역건축안전센터(건축물관리TF팀)’를 신설해 관내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설치 요건 중 하나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비율이 상위 30% 이상 지자체에 해당함으로써 설치됐다(건축법 제87조의 2 제4항).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전문 인력을 투입해 건축 행정의 사전적·절차적·기술적 검토를 집중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

주요 업무는 건축 인·허가 단계서

설계도서와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의 지정·대상통보·결과 검토, 건축공사장에 대한 점검·공사감리 감독 등이다.

또 소규모 노후 건축물(2층 이하, 연면적 200㎡ 미만)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건축안전전문단(건축사 등 8개 분야 30명)과 전문직으로 임기제 공무원(건축사·구조기술사)을 각각 3월 5~31일과 3월 10~1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평가 A등급 획득

정읍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되며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7개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운영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으며 정읍사회복지관은 복

지서비스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확대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서비스 다양화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A등급 선정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정읍사회복지관은 정읍에서 유일한 사회복지관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복지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